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1차 회의록

○ 일시 : 2021년 1월 21일(목요일) 10:00 ~ 12:1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정기회 회기 및 운영사항 논의 4. 안건상정 5.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윤영상, 박성수, 홍철운, 이동현, 이인재, 김중기, 이문선, 김지광, 김민성,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유희철, 조재영, 송완상 위원

○ 상정안건

-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제1안건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안건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제3안건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양규혁)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회기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회기는 당연직위원의 교체를 고려하여 금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하고 회의는 총2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및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차 회의에서 2021년도 대학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회기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건이 1안, 2안, 3안까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1안, 2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3안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29일 날 그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서 논의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합해서 오늘 다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받아본
(양규혁) 것이 어제 그제 그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주일이상 시간을 가지고
예산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들 :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안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양규혁) 는 전원일치 합의로 정기회 회기 및 운영사항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중에서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신임위원이 있는데 소개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총학생회장 김지
광회장이 신임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간단히 인사 하시죠.

위 원 : 인사말씀

(김지광)

위원장 :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했어야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죄
(양규혁) 송합니다. 그럼 바로 제안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
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김명숙)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양규혁) 바랍니다.

위원장 : 이게 지금 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양규혁)

재무과장 : 네 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 법적인 의무적인
(김명숙) 경비나 필수적인 사항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위 원 :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게 장애인을 일정 수 고용하지 않
(이동현) 으면 부담하는 건데 전에 아로미마실을 개업을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나보죠?

재무과장 : 네 거기는 저희가 사업자번호가 다른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북대
(김명숙) 학교 사업자 00219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 장애인의 인
원수에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원 : 아로미마실은 산단에서 고용한 장애인이고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 장애인고용부담
(최백렬) 금이 교원체제안에서 장애를 고용하지 않아서 그 만큼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협회에서도 올리
고 하는데요. 교수를 채용하는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수채용에서 장애인을 지정해서 채용하기 좀 힘들고 지금 예외조항으로 경
찰이나 검찰, 군인은 예외조항이거든요. 교육자도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총장협회의
에서 많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돼서 이것을 계속 이정도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눈에 띄는 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이 20억 원이 2월말까지 있는 돈들이 사용될 수
(양규혁) 있을까요?

재무과장 :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이월시켜준다는 걸로 되었습니
(김명숙) 다.

위 원 : 사무국 증액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단 표에 보시면
(박성수) 사무국 예산중에 배상금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사람교육원 쉽게 표현
하자면 한옥정문 소송 건인데요. 저기 보면 관련해서 이번에 1월 14일 2심패
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내에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위 원 : 공공요금 2억1천은 먼가요?

(홍철운)

재무과장 : 네 저희가 산단 전입금에서 공공요금으로 전입을 3억2천6백만 원을 받았거
(김명숙) 든요. 거기에서 인수공통하고 공공요금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공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
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활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생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공공요금을 3억5천만 원을 생활
관 돈을 납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재원도 필요합니다.

위 원 :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상금 4억 건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여러모로 학교의
(이인재) 재정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배상금4억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업무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를 따져보는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위 원 : 책임소재나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국제컨벤션때도
(박성수)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요. 구상권 청구권자가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에
학교에 이런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
를 하라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어떤 연유에서 발생했는지 일단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액이나 이러한 것들을 판명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소견
을 받고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승인이 되면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후 절차는 정확하게 진행 될 겁니
다.

위원장 : 구상권 행사여부는 교육부가 다시 지시를 한다든지 머 그런단 말씀이신가요?

(양규혁)

위 원 : 네 저희가 우선 재정손실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국제
(박성수) 컨벤션 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서 종료되었고요.
이번도 사안의 원인들을 조사 구상권 행사 여부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위 원 :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인 경우에는 업무상에 있을 수 있는 오류에 의해서 발생할
(이인재)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까?

위 원 : 교육부로부터 주의조치 한건이 나왔습니다. 구상권은 그때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
(박성수) 기 때문에 구상권은 저희가 청구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렇게 세부 법률자문,

위 원 : 외부 법률자문까지 다 거치고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정리가 됐습니
(박성수) 다. 특별히 그 이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위 원 : 알겠습니다.

(이인재)

위 원 : 그러면 지금 정문 설계 변경에 따른 패소를 한 거잖아요? 배상금을 우리가
(최백렬) 다 지불해야 되나요? 배상금 4억 정도

위 원 : 4억이 조금 안됩니다. 3억 조금 넘는대요. 일단 예산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성수)

위 원 : 구상을 하려면 누구한테 구상을 하나요?

(최백렬)

위 원 : 그건 조사를 통해서 유책자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별도의 절차에 따
(박성수) 라서 진행될 거고요. 구상권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검토를 할 겁니
다. 그런 거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해서 오케이
돼야 끝납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입세출현황을 자료를 작성
(김중기) 하는데 세입에는 기정예산액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세출예산에는 원래
항목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감액을 했으면 틀림없이 항목이 있었을 텐데
좀 저희들이 보기 좋도록 자료를 세입과 같은 형식으로 세출예산도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
는 이유가?

재무과장 : 지금 설명 자료고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라고
(김명숙) 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표로 전체사업별로 기정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양규혁)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양규혁)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양규혁) 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
원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10표, 반대0표, 기권1표로 본 안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규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이상노)

위원장 : 예, 이상노부처장님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앞으로 대학운영에 있어서 (양규혁) 매뉴얼이 될 수 있는 만큼 잘 짜여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학생정원 및 학생 수 추이 쓰셨잖아요. 이제 (홍철운) 저희 입학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의 입학생의 수가 지금 아마 요즘 신문기사에서 도배하고 있듯이 올해가 지방대의 60%가 미달입니다. 미달이고 지금 거점국립대학중에서는 전남대가 정시만보다라도 2.7:1로 해서 미달사태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우리 대학은 지금 3.27:1로 거의 3:1돼야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이 3군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1이 돼야 1:1이 됩니다. 즉 대학이 정원이 4천명이면 4천명을 채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학이 지금 올해 3.27:1이고 제 입학본부에서 예상컨대 내년 전북대학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 했을 때에는 3:1 밑으로 내려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았더니 입학정원이 지금 4,158명 정도가 되는데 10%만 되더라도 4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인당 25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전북대학이 미달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해에는 아마 더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수험생이 49만 명 그 다음에 대입정원이 55만 명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이 줄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여기 2021년도 기준을 보면은 입학정원과 학생 수해서 추이를 써 놓으셨는데 그런 계산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학력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5년 전부터 계속 경고된 사항인데요. 올해 이런 학력인구

(이상노)

감소를 보고 이렇게까지 낮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심으로 멀수록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져서 전남대는 우리보다 더 낮게 나오구요. 그래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측할 때 11월 달이 이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저희는 낮아질 줄은 모르고 예년 수준 기준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 나냐면 먼저 올해 취업률이 높아진 걸로 나오는데요. 학력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모수가 작아지니까 계속해서 취업률은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률 부분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잘 보시고 학력인구 문제는 우리 대학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수업인원이 더 감소 되어 제대로 교육이 될까 싶을 정도로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원 : 그래서 아마 그런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거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홍철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부처장: 그렇습니다.

(이상노)

위 원 :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및 기타에서 보시면 교육행정일반이 (홍철운) 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전북대학이 다른 타 대학과 비교해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내부거래가 구성 비율이 큼니까?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부처장: 여기에 저희가 직접편성을 안하는데요. 재무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 등 이런 비용 (이상노) 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 원 : 그러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에 경직성경비라고 나와 있죠? 그것과 연결이 (홍철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일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 원 : 그러면 지금 올해 계속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단과대학에 예산을 15%에서 많게 (홍철운) 는 22%까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각 요소요소 별로 상당히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감축이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2021년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부처장: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회계연도 90일, 3개월 전에 12월 달에 이미 편성된 (이상노)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학회계 예산 오른쪽에 책자로 별도로 갖고 계신 올해 세출예산에서 아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그러면 19페이지에 나오는 그러한 경직성경비의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등 (홍철운) 을 보면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했고 2021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좀 감액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다음 주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부서운영비는 일단 20%감액된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 원 : 근데 그 부서운영비 내에 요소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직성경비가 (홍철운) 있고 조금 낮춰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지금 처장님도 그리고 부처장님도 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당장 그 소스가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이런 소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좀 더 큰 틀에서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3:1이 아닌 제가 최악의 경우 한 2:1로 봤습니다. 그러면 2:1이란 30%가 감소가 됩니다. 입학생이 그러면 4,158명을 4,000명 잡고 1,200명이 감소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30%면 지금 거의 아까 이야기했던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어디서 감소를 시킨다고 해서 표시도 나지도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음주에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진짜 꼼꼼하게 잘

위 원 : 보시고 이것은 없앨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되고 반드시 (홍철은) 해야 될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의 운영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드시 써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꼼꼼히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학생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양규혁)

위 원 : 학교가 돌아가기 위한 엔진은 가장 큰 게 정부의 재정비용이겠죠. 정부의 지원 사업 지원금 그 다음에 국립대학 수업료 그 다음에 산단 회계에서 지원하는 돈 그 다음에 발전지원재단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 국립대육성사업이랄지, 혁신지원사업이랄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수입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가 않고 입학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은 입학생이 줄어들면 줄어들 것이고 또 13년간 동결되어 있고 산단 회계도 첫해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따온다던지 특허가 기술 등으로 인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려면 교수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지원재단 지금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상태에서 지역에 가가지고 발전지원금을 달라고 하기에는 말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기반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지원부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도 없는 거고 물론 혁신지원사업도 연계되려면 됩니다만 이것도 참 불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머냐면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금 수입, 외국인 같은 경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학교의 존폐위기에 돈을 어디서 구할꺼냐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수입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안 보면 외국인 등록금 수입은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학생 등록금 수입에는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좀 목을 나누다보면 외국인 등록금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 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짧은 시간 2년 동안 국제협력본부 (이동현) 장을 맡으면서 유학생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 1,700명이 있고요. 등록금 수입이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8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경희대학교가 6,500명입니다. 유학생이요. 그러면 대충 등록금 수입이 얼마인지 아마 계산이 되실 겁니다. 500억이 넘습니다. 우리학교 등록금 전체 수입이 800억입니다. 500억이 유학생입니다.

위 원 : 정원 외로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유학생들은요. 한양대가 4,500명, 중앙대가 (이동현) 4,000명 지방에 우리가 잘 이름 모르는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은 전적으로 유학생에 의존해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유학생에서 중국학생이 우리나라대학의 호흠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대학에 앞으로 비전에도 이런 측면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물론이게 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2년 전에 새로운 대학 행정부가 생기면서 이런 상황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활은 건다는 게 사실은 국제협력부 차원에서가 아니고 거의 대학본부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활을 걸고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근데 우리가 국립대학 입장에서 사립대학하고 같은 그런 모양으로 유치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구성원들이 재정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수님들도 직원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 유학생 교육과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학생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캠퍼스에 강해서 제가 2년 동안 그것과 싸웠다고 정리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우리 재정위원들도 그런 측면의 재원필요하다 자원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느 한 부서만 맡아서 할 일은 아니고 이게 단지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다 봐선 안 되겠죠.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 대학으로서 학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입장에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인식에 수정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 사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억 정도고 1,700명 정도가 유학생이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상당히 큰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 저도 주로 회계학 교수들이 사립대학에서 기획재정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양규혁)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십몇 년 간 등록금 동결로 나타나는 재정적자를 대부분 정원 외 유학생을 통해서 메꾸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많게는 200~300억 정도 재정적자가 유학생으로 메꿔진다고 하는데 우리학교는 좀 재정확충기회를 잘 못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더 유치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측면에서 논의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 원 : 전반적으로 보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상당히 앞으로 대학발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데 암울한 현황 속에서 예산의 감소 현황이라든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컨셉이 맞춰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인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대 의제하고 관련하여 27페이지인데 이 7대 의제 및 14대 실천과제에 대한 설정을 누가 한 겁니까?

기획예산부처장: 여기는 비전2030작성할 때 이 부분이 앞쪽에 큰 의제로 적혀 있고요. 그에
 (이상노) 따라서.....

위 원 : 그러면 이게 집행부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논의구조가 형성
 (김중기)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부처장: 초반에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취임식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혁신지원
 (이상노) 사업같은 데에서도 계속 질적 제고랄지 여러 측면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려고 하면 거
 (김중기) 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보면 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산서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보이고 여기에 7대 의제와 14대 실천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한 논의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이렇게 할 수가 있
 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거든요. 그냥 예산은 사무국에서 적
 당히 짜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되는지 정
 말 안타깝습니다.

위 원 : 7대 의제는 2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고 거기에 맞게 짚욱 뒤에 44페이지 보면 사
 (홍철운) 업별 내용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부처장: 네 일부는 반영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회계 사업으로 7대의제 14대 과
 (이상노) 제를 추진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 교무처의 신
 임교원이랄지 국외연구교수 각종 해오던 사업조차도 지금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서 이런 의제나 과제부분은 거의 다 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대학의 비전2030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었다는 것
 (김중기) 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는 어디선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비전체가 그려져 있고 예산은 주어진 예산에서 합리적 배분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그리고 재정이 이렇게 꺾박하는 가운데 우
 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안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대학
 회계직원들을 줄여야 되는지 유지하여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중앙 아니면 다른 기관에 공모사업에 저희
 들이 지자체 인정을 받아야만 지자체가 약간 부담을 해줘야만이 되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지방의 지자체를 가게 되면요 너무나 전북대학에 대한 불
 신이 큼니다. 대학은 머할꺼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에서 약간이라
 도 자기 부담을 하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방향성을 보
 면 그런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게 되는 지역과 따듯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표방하면서도 이러한 지역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위 원 : 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고 마치 잘 짜여진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 (이인재) 는 노력이 보이는 그런 분석이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립니다. 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하는 좀 눈물겨운 노력인데 아까 어느 위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학에서 그렇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압력은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건데요. 면적이 넓을수록 힘이 실제로 느끼는 압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힘은 정해져있고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있고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부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석 구석 찾아서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곳이 있을까 찾아보는 것이 일단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분에서 되는 한탄 정도인데요. 지금은 개화시기에 맞춰서 즉 서울에서 먼 곳 일수록 힘들습니다. 교수채용을 해도 지원하는 교수수도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줄어듭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존재위기인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재정위원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이것은 대학전체 집행부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총장님들의 또는 같은 위기에 처한 국립대 특히 거점 국립대만이라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분은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박대통령시절에 외국에서 IBRD차관을 들여와서 각 거점국립대에 배분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회로 그건 단순한 투자이거든요. 인프라도 없었고요. ~~돈~~에 투자대 그투자가 사실은 거점국립대를 지금 소위 말하는 삼국대, 무슨대 그때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시절에 버금할 만큼 한 그런 지방대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장관들을 비롯해서요. 비록 그것이 재정위원회의 노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요.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포커스를 총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렇게 루트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검투장에서 싸우도록 살아남는 사람만 내버려두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가 검투사인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기분도 듭니다. 마치 투자도 안하면서 그 다음에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취업률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는 것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검투사 죽기를 기다려서 남들과 싸워서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처지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결정권이 있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집값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문제 해결 할 수 있거든요. 서울로 유학비가요 제가 독일에 유학 보내는 친구 아들의 비용과 비슷합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자조적인 멘트였습니다.

위 원 : 작년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할 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있었고요. 그때 드는 생
(박성수) 각인데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
리 이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한발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면은 아까 김종기 위원님
도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전략 대책반은 약간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재정위원회 역할인데 전체적으로 학교 재정 전략을 어떻게 갈 것
인가 교비회계는 어떻게 하고 산단 회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수입
을 늘리는 전략은 머냐 지출을 줄이는 전략은 머냐 이런 전체적인 전략 비전을 다
루는 분량이 제 생각에는 3쪽 정도 일반 우리 구성원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런
액기스가 딱 정리가 되어서 그 문건만 보면 학교 현황이 이렇고 재정이 앞으로 늘
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종합
적인 것이 없다는 게 이해차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
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재정위원
회 차원에서 어떤 권유문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전략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집행부
에 건의도 하고 그러면 재정위원회 활동이나 구성원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줄어드는 문제, 국고 보조금 문제 그런 것들을 해서 재정에 어떻게 우
리가 유학생이라든가 머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략적으로 대응 할 것인가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김종
기 위원님께서도 주요사업비를 사무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일체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11
쪽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거점국립대 비교는 아주 좋은 자료 같은데요. 저
희가 보면 자체수입이 일단 적습니다. 자체수입도 전남대에 비해서 적고 여기에 원
인을 다음 회기 때 분석과 일주일 후에 공급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리고 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높는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정도 됩니다. 8.5%나 되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해서도
좀 거시적으로 공급합니다. 그 예산 계수하나하나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
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라고 해서 회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
고요.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을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우리 대학 예산 전체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거든
요. 근데 문제가 머냐면 자체예산을 쓸 수 없는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
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예산들을 쪽 보면은 저희 총예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줄은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만 줄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등록
금에서만 써야하는 그 경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예산 구조를
봐줘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 원 : 저희 쪽 돈이 세입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문선) 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줄일 수 있는 것은 세출일테고 세출에
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 교원이나 조교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 회계직쪽이 지금 계획에는 319명 되어있는데 2021년 예산을 보면 한
327명일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넘어오신 분들이 더 있었으니까 저희가
전 집행부 때부터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수년전부터 저희가 퇴직을 하면 채
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자연감소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게 문제
가 되니까 자연감소를 계속 할 수 있게 퇴직을 하면 그 인원을 충원하지 말
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더 늘었어요. 고액연봉자가 나가고 들어오
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가상승률과 호봉이 상승하면 몇 년이면 결국 늘어나
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면 임금협상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고액
연봉자가 나가면 이거를 제발 충원하지 말고 계속 자연감소를 어느 정도까
지는 줄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우선 안 되는 이유는 재정위원회에서
저희 대학회계직원의 TO정원을 정하게 되어있어요. 결국에는 만들어졌을 때
부터 말했지만 아직도 정원을 정해주지 못하고 있고 정확한 정원자체가 매
년 바뀌는 중인거지 정확하게 딱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직원이 줄으려면 본부 업무 자체가 슬림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직자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만 생각하면 당
연히 새로운 사업이 생길 거고 거기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했던 업무들을 없애거나 통일하거나 합쳐가지고 그 인력을 유용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일만 계속 늘어나니까 직원은 원래 본연에 했던
업무는 안 없어지고 업무는 계속 추가 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데
전출도 가고 그러다보니 인력충원을 또 요청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부 모든 부서보면 인력이 없다는 얘기만 하실꺼예요. 인력이 남는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근데 어차피 학생도 줄고 며 한다고 하면 학교 자체도
업무 자체도 행정조직도 슬림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원도 줄여나가면서 인건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직자분
들도 부처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을 하실 때 늘리는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
고 예전에 했던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없앨 것인가 어떤 것을 처벌 것인가를
같이 하셔가지고 있는 인원을 재배치를 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
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 오늘 이문선위원님께서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박성수)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우선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이 재정위원회에서 진행
되었었는데 여기에 정오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위 원 : 정오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타 대학 사례를 보면 정오표 밑에 부기가 달려
(박성수) 있습니다. 퇴직자정원은 자연감소하게 되는 조항까지 붙임으로 다 박아버려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규
정을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아마 대학회계직은 채용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하나요?

(양규혁)

위 원 : 예, 공채입니다.

(박성수)

위원장 : 앞으로 갈수록 교직원들이 정예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규혁)

위 원 : 저희는 인사규정을 만들어가지고요. 컴퓨터 활용능력 1등급, 토익이 일정수준이상만
(박성수) 지원자격조건으로 아예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 갈수록 정예화되어야 한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규혁)

위 원 : 거기서 딜레마는 조금 생기는데요. 정예화와 급여수준의 문제입니다. 대중 수준에
(박성수) 월등한 행정 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우리 사회에서의 중견기업 이상의 급
여를 줘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결국 그 관련해서 일부직종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데는 정예화하고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그냥 가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기획처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윤영상) 말씀해주셨는데 재정확보 전략 같은 것이 빠져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
습니다만 마땅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아무튼 일단은 재정확보 전략에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최
소한 국립대학만이라도 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내려와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
다고 보고요. 그 노력은 이인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열심
히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위원장도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크고 대선공약
에 들어가야 그나마 될지 말지 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게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작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거의 전략의
핵점포인트가 신입생인데 입시요강이 사전에 나가고 그러지만 입시를 좀 더 적극적
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홍보라든지 아니면 편입학도 적극적으로 받고 최근에
편입학도 열심히 노력해서가지고 재정적으로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부족하
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대학생
정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는 재정기여도를 봐서 먼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유학생이 거의 머 고민 끝에 나온 것은 결
국은 유학생일 텐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 유학생 받는 데가 상대 주축으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왕창 떨어트려셨어요. 그 이유가 애들 받아서 지도하는데
고생은 엄청 하는데 보상은 전혀 없다. 근데 그것은 학교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재정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위 원 :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회계제도 말씀을 (윤영상) 하셨습니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라든지 또 지금 도장 찍는 절차들도 아직도 많은데 행정 프로세스가 그런 것에서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을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이 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부분은 다음기회에 담겠습니다만 전 구성원이 지금의 위기와 상황을 공감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위원회 명의로 건의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 원 :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략이 만사나 인풋대비 아웃풋이 더 좋으면 인풋 (최백렬) 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까 입시문제 유학생 유치문제 거기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주어서 입학생을 더 모으고 편입생 더 모으고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 원 :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 예산이 유치 예산이 없습니 (이동현) 다. 이번에 너무너무 깎여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위 원 : 지방대 대부분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최초 합격자에게 전원 장학금을 주겠다. 그럼 (홍철운) 예도 불구하고 2.47:1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정 예산 지원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머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쪽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서울 수도권은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기획부처장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 와 닿는데 어떻게 예산을 늘릴 것이라는 것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잘 담겨야 된다는게 오늘의 포인트 같습니다.

위 원 : 저도 우리 교무처장님 말씀에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11쪽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박성수) 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예산 효율성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적재적소 사용 그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효과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북대 세출합계가 전남대 세출합계보다 적습니다. 강원대보다도 적고요. 유사한 충남대, 우리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쓸 때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공주대 근처대학 쓰거든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학교의 세출예산이 충남대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때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이 세계잉여금이 왜 많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출합계가 적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렇게 못쓰고 경쟁대학, 유사대학보다 못쓴 상태라는 것도 한번쯤 분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원 :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가 (홍철운) 지고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니까 타 대학하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타 대학은 타 대학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의 현실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새고 있는 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 원 : 제안하나 하겠습니까. 아까 이문선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
(이동현) 계직직원을 자연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회계
직원선생님들의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 그게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이 위기의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실 되는 일이 없어요. 사립학교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지금 그 학생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이 학생들 100명 데려왔는데 이번에 상대에서 합격률 50%입니다. 이 유학생들 다른
학교 갑니다. 공대 합격률이 15%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가 교육의 스탠다드를 유지한다는 교수님들의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위기의식이 없
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평교수입장에서 일반교수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모르
는 가운데는 그냥 내 생각 교육은 이래야 돼 그런 자기 철학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 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 평교수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의 예산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일반교
수들도 알 수 있게끔 교직원선생님들도 아시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만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
들이 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그래야만 조교들하고 사실은 교수 4명있는 과도 조교
하나있고 20명있는 과도 하나있습니다. 근데 그 4명있는 과가 전혀 포기하지 않죠.
좀 제가 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만 학교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개선책 인력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도 가능하
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안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일반교수
도 알 수 있도록 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개요라도
나눠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 지금 이것이 공유가 안 되나요? 공시자료가 아닌가요?

(양규혁)

위 원 : 근데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와서 볼 수 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식의 공유가 아니라
(이동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임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단과대학 순회방문을 4월중에
(윤영상) 하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재정상황이나 입학추이라든가 이것을 반드시 넣어서 2
쪽정도로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음 주 예산심의회가 상당히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양규혁)

위 원 :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인재) 상대도 그렇고 공대 지원자도 많고 방금 많은 학생들이 탈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해드렸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해당되
시는 학과나 대학에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교육상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철
학이 다른 겁니다. 그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도 사실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 상대에서 이미 화두가 된 문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재정적 (양규혁) 으로 도움이 되는걸 상대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상대 교수님들은 이게 열정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외국인 학생 하나 받아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졸업시키는데 엄청나게 특이 인문사회는 박사학위 위주로 하는데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교수가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는데 이게 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걸 과연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이미 상대에서도 어떤 교수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져요. 안 맞는다고 지도도 안 맡고 수업도 안 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직이 저 사람은 안하고 있는데 나만 계속 하고 있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교수님들도 다른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 제도가 그것을 아직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다 교수생활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밤새워서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 상태라 저는 우리학교 제도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 교수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지 말자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 원 :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학생들 (이동현) 하고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과목 예를 들어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냐 돈만 보고 가르쳐야 되냐 라는 어떤 교육철학적인 입장도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거 머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교수 입장에서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용적인 관점은 사실은 그런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수고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막강한 리워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또 아까 학력 문제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그런 것을 겪었어요. 우리 국내 학생들도 굉장히 학력이 저하 되가지고 이런 애들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나 그것을 거쳤어요. 근데 교수님도 아시죠? 우리가 이제는 달라진 세상에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학생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다방면의 측면에서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위 원 : 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최백렬) 아까 인풋대비 아웃풋도 교수들한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투자를 해서 좀 기여를 했을 때 외국인 등록금을 2,000명~3,000명이면 120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3,000명을 대학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만이라도 노력한 분들에게 지원해준다면 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유학생을 배출하면 그게 또 선순환으로 작용해서 더 좋은 유학생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들한테 어떤 교육자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교단에 서야 되지만

위 원 : 그렇지만 세월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최백렬)

기획예산부처장 : 그에 관해서 이번에 좀 연구를 해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개별적인
(이상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과에서나 전체적으로 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과목에 '보상적 경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수입을 증대를 시키거나 그것을 위해서 월등하게 노력한 자에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국제협력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보상적 경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기재정 운용계획 자체도요. 저의가 보시다시피 다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가 없이 각 공사자료에 있는 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 특히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해주신 11페이지 이런 분석 자료를 보려면 사무국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대요. 그런 정보들은 기획처에서는 접근할 권한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절차랄지.....

위 원 :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사업이 2019회계연도 예산
(박성수) 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이 마치 정보를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서외의 내용을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산부채 자본을 뒀다고 해서 정보
(이상노) 를 다 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산출근거랄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러한 내부적인 것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자원 운용 얼마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위 원 :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지 그 이상은 실
(박성수) 질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죠 그야말로 내년도 예산을 줄 때 공무원 몇 명에 호봉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총합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사업무, 재무업무 모든 것에 대한 전체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기획하고 사무국이 분리돼서 그런 혼돈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쨌거나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19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서,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재정에 관한 내용을 재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자체를 재무과에서 추진을
(이상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겉에만 보고 하다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없어서.....

위원장 : 그것은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기획처에서 하는 게

(이상노)

위원장 : 그러면 그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해서..

(양규혁)

위 원 : 다음 주에는 예산안 2021년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중요한데
(홍철운) 다음 주에 할 때 이 예산안을 어떻게 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세부항목별 항목들이 허리를 졸라매도 될 곳이 있냐 없냐를 빼서

위 원 : 그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마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 주에 (홍철운) 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금 우리가 이미 예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또 보시고 그때 잘 검토하기 (양규혁) 로 하고요.

위 원 : 일주일동안 검토하시다가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때 회의석상에 오셔서 말씀 (홍철운) 하시지 마시고 부처에 요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주일동안 하시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원 :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체계가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 (김중기) 는 일들인 것 같고요. 물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여쭙볼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제 교수회를 통해서 제가 안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게 체계가 잘 갖춰져있다고 하면 조직개편은 이미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맞게 중기재정운용계획도 만들어내고 21년 예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이 부서들이 달라진 가운데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전처리해서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조직개편을 하면 새로운 조직에 맞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일반 지자체에서는 조직개편을 한 10월 달 정도해서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예산을 그대로 그냥 이 조직에 맞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었고요. 조직개편이 좀 ~~시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좀 (윤영상)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직에서 개편되는 것이 연구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위치변동만 있기 때문에 연구처는 대부분의 예산을 산단 회계에서 쓰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크게 변했을 때 그것은 이제 확실히 사업계획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 원 : 근데 일부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중기)

위 원 : 예산은 목적별로 짜지기 때문이에요. 부서와 상관없이 그 예산은 그 목에 쓰는 거지 (박성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만 바꿔주는거지 예산 장, 관, 항, 목이 바뀌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면 인건비는 인건비 업무가 사무분장에 교무처로 갔다고 하면 소관만 바뀌는 거지 인건비 예산 목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업들은 사업으로 보면 그 사업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주관부처가 교무과나 학생과나 이것만 바꾸는 것, 소관부서만 바꾸는 거지 예산 이, 전입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원 : 글로벌프론티어칼리지 여기가 지금 여러 개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김중기) 관련된 행정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요?

위 원 : 글로벌융합대학은 조직개편은 이미 됐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본부부처 조직 (윤영상) 개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처가 신설되었는데 가장 크고 연구처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사실은 대학회계보다는 산단 회계에서 대부분 다 쓰거든요. 심지어는 보직수행경비까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그래서 저는 이체처리하거나 전용해서 쓰시거나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김중기)

위원장 :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워낙 길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분들이 동의를 하여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지 않는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10표, 반대0표, 기권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기회1차 회의를 2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세 번째 안건은 안건 상정만 하고 29일 날 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은 다음 주에 하고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 원 : 방금 상정된 예산 심의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규정개정 제안을 해서 회의도 늘리고 (박성수) 운영절차도 중에 하나도 사실은 소위원회도 제안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위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여유를 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중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회의 때 예산 충실한 토론과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간서명대표자 3인 선출이 있겠습니다. 본 회의록 (양규혁)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조재영, 이동현,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윤영상, 이인재,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윤영상 위원님, 이인재 위원님, 이문선 (양규혁)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양규혁) 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1년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
(이경환) 겠습니다.

작성일 : 2021. 1. 28.(목)

위 원 장 : 양 규 혁 (인) 
간 사 : 이 경 환 (인) 
기 록 자 : 김 선 응 (인) 

—



41 21